



##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新元寺 盧舍那佛掛佛幀

국보 제299호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8번지 신원사

조선 인조 22년(1644)

길이 1118cm, 너비 688cm

괘불은 사찰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 놓는 탕화이다.

이 그림은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노사나불이 영취산에서 단독으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그린 것이다. 가운데에 커다란 노사나불은 배치하고 그 좌우에 10대 보살과 10대 제자·재석·범천·사천왕 등이 화려한 색깔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짜임새 있는 구도에 섬세한 표현과 밝게 표현된 색감이 세련된 솜씨로 표현되어 있어 조선 후기의 불화양식을 보여주는 17세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괘불 조성에 사용된 물품을 시주한 시주자의 명단과 증사 영준과 화원 응열 등 조성에 참여한 인물, 그리고 갑신년(1644) 6월에 신정사에서 조성하였다는 시기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화기(畵記)가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